

[특집: 구제역 종식 이후 축종별 사료산업 전망]

양계 사료산업 전망



강 상 식
중앙축산사료(주)
품질관리 이사

지난해 11월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태로 축산농가 및 관련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지난 4월 3일 충남 홍성군의 이동제한 해제로 125일만에 사실상 종식단계에 이르렀으나 이에 따른 2차, 3차 피해는 현재 까지도 진행형에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 재건을 위한 재입식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업계와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후보모돈 및 젖소의 부족과 재입식 농가에 대한 일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여전히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4월 6일 경북 영천의 양계장에서 101번째 고병원성 AI 신고가 접수되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의 오리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AI는 4월 8일 현재 양성판정이 난 52곳을 포함 주변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270여개 농가에서 630만 마리를 살처분 매몰하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고병원성AI 바이러스는 혈청형(subtype)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어 사람이나 차량은 물론이고 철새까지도 전파원이 되기 때문에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따른다.

고병원성AI에 감염된 닭은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발생건수가 높은 오리의 경우 고병원성AI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발생시 초동방역이 어려운 점도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의사 환축 발생시 조치사항, 사료공급요령, 분뇨처리요령 등의 표준행동요령(SOP)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매뉴얼 개편과 조직정비, 제도 개선이다.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대응 방안과 백신접종 계획,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관리,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 및 축산업 허가제 도입·등록제 강화, 도축시설·사료공장 등의 권역별 독립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관심을 끄는 제도가 오는 2012년부터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시행 방안을 오는 4월 말까지 확정지를 방침이라고 하나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축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 염려되므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직접적인 축산업 생산액 감소를 유발해 축산 농가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 특히 사료업체는 이번 구제역 및 고병원성AI로 인한 가축 사육마리수 감소로 사료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총 1,753만톤에 달했던 사료 생산량이 올해는 240만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최근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배합사료 주원료 국제시세 및 해상운임비가 크게 상승하는 등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료업체에 미칠 영향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특히 양돈 및 축우사료 시장의 물량 감소로 중소 사료업체의 주된 시장인 양계사료에 대한 물량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마케팅이나 영업기반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양계 사료산업 전망

구제역 종식 및 조만간 종식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양계 사료산업 전망은 양돈 및 축우 등에 비해 사료 물량적인 면에서는 비교적 감소 현상이 덜할 것으로 예측되나 향후 구매되어질 국제곡물가가 2008년도의 수준보다 상회하고 있어 양계농가 및 사료업체의 어려움은 그 어느때 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양계사료 생산현황을 보면 <표1>에서와 같이 3월까지 전년대비 0.3% 증가한 약 1,092천톤을 생산하였으며 육계사료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산란사료 생산량은 1.7% 증가한 반면 육추는 1.7%, 종계사료는 3.4% 각각 감소하였다.

<표1>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현황

(단위:톤)

구분	2011 (1~3월)	2010 (1~3월)	전년대비 (%)
육 추	73,597	74,891	98.3
산 란	509,350	500,614	101.7
육 계	427,555	428,577	99.8
종 계	82,295	85,180	96.6
소 계	1,092,797	1,089,262	100.3

(자료: 한국사료협회)

<표2>의 대한양계협회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동향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이후 평년보다 입식량이 많았으며 금년 들어서는 한파의 영향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식 기피현상으로 1월, 2월에는 종계입식이 감소하였으나 3,4월 입식량이 크게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육용병아리 생산 마리수는 <표3>의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에 의하면 전년 동월 대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13%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육계 배합사료시장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사료용 원료가격의 급등과 함께 병아리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산지가격의 하락세가 예측되어 시장 상황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 동향

(단위:만마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32	53	57	55	43	34	57	66	59	59	42	28
2010년	36	56	69	65	50	40	58	83	71	61	46	34
2011년	21	43	70	67								
평년	32	52	57	48	42	37	58	64	56	44	34	28

(자료:대한양계협회)

<표3> 육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11년(A)	126.7	134.1	136.6	131.7	120.7	115.8
2010년(B)	111.7	118.4	120.5	114.8	109.8	110.0
증감율(A/B)	13.5	13.3	13.3	14.8	10.0	5.3

주: 육용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계산하였으며, 2010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하반기 계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하반기 신규 산란종계 입식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산란종계 입식마리수는 2009년 보다 4.1% 증가한 53만 9천마리였으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종계 17만 2천마리가 매몰 처분되는 등 당분간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산란종계의 추가수입 및 산란실용계 병아리 수입시 적용되던 할당관세 9%를 향후 1년간 100만수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산란실용계의 부족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수입되는 병아리의 품질 및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불균형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4> 산란계 사육마리수 전망

(단위:만마리,%)

구 분	10.12월	3월	6월	3월/12월	6월/3월
2011년(A)	6,170	5,984	5,738	-3.0	-4.1
2010년(B)	6,297	6,252	6,159	1.6	-0.7
증감율(A/B)	-2.0	-4.3	-4.0		

자료: 통계청(11년 3월,6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또한, 통계청 및 농업관측센터 자료에 의하면 <표4>에서와 같이 2011년 6월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전년보다 4% 감소한 5,738만 마리로 전망되어 산란용 배합사료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곡물, 원당 등 식품류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주요 곡물 생산국인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기상변이 발생해 생산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풍부해진 유동성이 원자재 선물시장에 영향을 주어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8~9월 도착분 배합사료 주요 원료가격 추세를 보면 옥수수 380\$/톤, 남미산 대두박 430\$/톤, 소맥 320\$/톤 수준으로 옥수수, 대두박은 년초대비 약 30~40%, 소맥의 경우 60% 이상 가격이 올라 배합사료 가격의 추가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적 재앙 수준인 구제역 및 AI 사태로 우리 축산업계가 최악의 상태인 가운데에서 곡물가격의 급등, 배합사료 항생제 사용금지 등 제반 여건마저도 어려워져 더욱더 힘든 한해가 되겠지만 축산농가, 사료업체 등 모든 축산인들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더욱더 탄탄한 축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